



2면

민·관·군·경안보태세 확립 총력

전주매일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음 2월 24일) 제32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4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육성 비전선포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도내 6개 대학 총장,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관련 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도약

전북도-테크노파크, 산업 육성 비전선포식

밸류체인 고도화·글로벌 맞춤형 인재양성 등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동 대응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육성 비전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도내 6개 대학 총장,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KIST 전북분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K 넥실리스, 정석캐미칼, 성일하이텍, 비나텍, 천보 BLS, 에너지배터리솔루션, 이엔플러스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 실천을 다짐했다.

도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대 과제를 밝히고 향후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

도화 △R&D 혁신허브 구축 △글로벌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내 산·학·연·관은 이차전지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R&D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북대학

교 등 6개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도는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는 새만금 지역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전선포식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육

성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기업지원 본부장 등을 역임한 전북대학교 오명준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 KIST 전북분원 이성호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 군산대학교 최연성 부총장, (재)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단장, 성일하이텍 이태준 이사가 참석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주축으로 거듭날 것이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올 '전북천년명가' 참여 업체 모집

도, 내달 27일까지... 선정시 경영지원금 등 지원받아

전북도는 전통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도 전북천년명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6개 업종을 선정할 계획으로, 대상은 유흥업·도박업을 제외한 업종이며, 기업 승계의 경우에는 대표자(창업자)의 6촌 이내 혈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자가 해당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전북천년명가 인증현과과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원, △TV 방송 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

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 경쟁력을 더욱 높일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양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메일(jbsosang@naver.com)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누리집(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내달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설정... 행정력 동원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 야간 단속 강화... 산불 발생 최소화

전북도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4월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산부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를 집중 감시하고, 주말에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418명을 산부락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 단속과 진화헬기(임차)를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헬기·인력 등 진화자원의 전략적 운영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제고를 위해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공조를 강화한다. 이에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인력과 진화 헬기를 총동원해 2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입산자의 화기 소지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발두렁이나 쓰레기를 잘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일 산림청 관계관을 비롯해 군부대, 전북경찰청, 전주기상지청, 한전, 국립공원, 14개 시·군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산부락안전관계관 회의를 갖고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중점 추진대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기관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산불 진화인력 등 진화자원을 공유·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골든타임제'

전북 지역의 여성벤처기업인들로 구성된 여성벤처협회가 출범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는 14일 오후 전주 그랜드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여성벤처협회 초대 회장에는 (유)이리울수산 박금옥 대표가 맡고 있으며, 4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도내 여성벤처기업인파 김관영 도지사, 안태용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청장, 이인호 전북벤처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는 지

'여성벤처기업 생태계 발전 디딤돌'

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출범... 기업인 경영애로 해소 역할

난 2021년부터 전북여성벤처기업협회의 활동을 시작해 여성벤처기업의 대내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본격 승인에 이은 출범을 하게 됐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

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우면파워'를 통해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경영애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며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전북지회가 도내 여성벤처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성벤처기업 생태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여성 벤처기업을 키운다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나라를 더욱 다채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북도는 1조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 조성, TIPS 운영사 유치 등을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미래교육 환경구축

수업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인사제도 개편

행정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학생중심 미래교육

2023 전북교육청

10대 핵심 과제

교사와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해외연수 확대

문·예·체교육 강화

전북미래학교

전라북도교육청